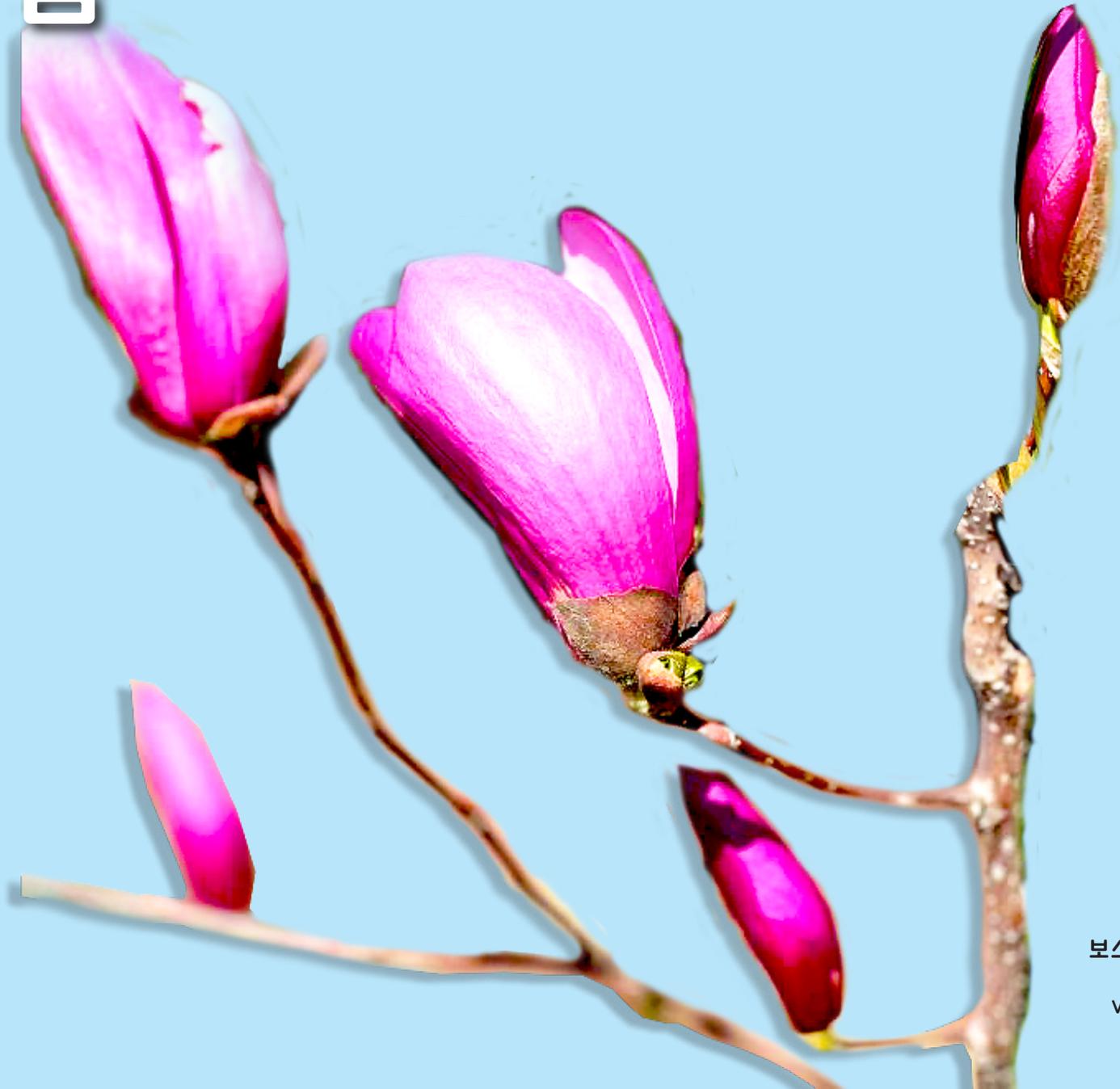


한올타리 2021 봄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51 No 1 2021. 4. 30
편집: 홍보위원회

제2의 부림절

이영길 목사

얼마전 르호봇 이야기에서 에스더에 대해 나눌 때 부림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림절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제비(부림)을 뽑아서 날을 정했는데 바로 그 날에 하만과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도리어 멸절당하게 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지난 이틀간을 부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곧 이틀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이는 오늘까지 전해 내려 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부림절을 지키고 있지만 주님을 지키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림절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는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astertide라고 하는데 부활절 후 오순절까지 50일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전통에 의하면 오순절에 이르는 주일을 모두 부활주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곧 7번 연속해서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한편 이 Eastertide때 행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부림절에 행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서로가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의 부활을 즐깁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 후 Eastertide를 제2의 부림절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지난 3월, 본 교회 당회에서는 총회에 KCB 교인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활동교인 총347명)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해(2020년도)에 안수집사로 추천받아 담임목사님의 교육을 수료한 5명의(신정욱, 신준섭, 김태훈, 박상철, 전은영) 집사님들을 안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안수식은 추후에 공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직수련회 준비: 제직수련회의 목적은 본교회의 미래를 위해 모든 집사님들이 각 위원회 업무와 활동을 알고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팬데믹으로 적어진 제직들 간의 교제의 기회를 부여하며, 집사님들의 훈련개념으로 함께 일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각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관심있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초대, 우선 비대면 모임을 갖기를 권장하고 집사회와 권사회에 참여를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당회 Covid-19 테스크 포스: 지난 3월말 모임을 가졌습니다

- 주정부의 지침사항과 원활한 백신접종과 교회주변 학교들의 정상화를 고려하여 주일예배는 3세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계속 유지하고 대면 예배 참가 인원을 현 25명에서 50명으로 늘렸습니다.

- 백신을 접종 받고 2주가 지난 분들에 한해 25명 까지 소모임을 허락하고,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소독 등)권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미국교회의 요청에 따라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들의 대면예배를 시작할 경우 본 교회 예배를 유.초, 중고등부의 성경공부 및 분반공부 모임을 고려하여 본예배시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당회 소식

2021년도 당회 및 각 위원회

당회	당회장	이영길 목사
	당회서기	장양술
	재단 이사회	이정민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운영위원회	이정규 & 이유택	김대식 집사
건물 관리위원회	엄재관	최학수 집사
교육1부 위원회		황동준, 진정원 집사
교육2부 위원회	한문수	구용한 집사
교육3부 위원회	방경남	김옥식 장로
교인1부 위원회	안성완	신준섭 집사
교인2부 위원회	안성완	신준섭 집사
국내선교위원회	김동규	유승오, 조나현 교우
해외선교위원회	이정민	김경애 권사
예배예술회	박신영	안명훈(1부), 김대식(2부) 집사
	1부 찬양대장: 김한나	
	2부 찬양대장: 김영범	
재정위원회	김영범	회계: 김용욱집사
정의평화환경위원회	김동규	정광근 집사
홍보/출판/역편위원회	김한나	배광현 집사
행사위원회	장양술	최학수 집사
집사회	채진병 집사	집사회 고문: 이정민
인사위원회	당회서기 장양술	이사장 이정민, 안성완
	당회장 이영길(당연직)	재정위원장 김영범(자문)
공천위원회	김한나	방경남
회계 감사	김동규 & 채진병	
노회 총대	당회서기(당연직) 장양술 한문수	

사역팀별 동아리

미션동아리: 국내선교, 해외선교, 정평환

배움동아리: 교육 1, 2, 3.

섬김동아리: 건물, 기획, 재정, 집사회.

만남동아리: 예배예술, 교인1,2, 홍보.

2021년도 소그룹 성경공부반 인도자 및 부인도자

주일 성경공부반	인도자	부인도자
베드로반	권복태 장로	홍경자 장로
다니엘반	김동숙 집사	김경희 권사
안드레반	박신영 장로	김영순 집사
빌립반	노시일 집사	이선영 장로
요한반	방경남 장로	김옥식 장로
바울반	이재익 집사	정하균 집사
부부청년반	한문수 장로	윤병준 집사
홀다반 (신규 온라인반)	이재익 집사, 정광근 집사	
강의식 공부반	이요한 목사	

당회 소식

2021년도 구역장

북동구역	배광현 집사
북서구역	권현정 집사
남동구역	김연희 집사
남서구역	이재일 집사
중앙 2구역	김경애 권사
중앙 3구역	김대식 집사
중앙 4구역	안성완 장로
중앙 5구역	오형석 교우
중서 1구역	권복태 장로
중서 2구역	김제성 집사
중서 3구역	정현아 집사
중서 4구역	최진민 집사
영어구역	이혜승 집사

2021년 2월7일 제직 임직식



신임 권사



김경희

김해숙

윤영자

재임 장로



김동규



김영범



박신영



이정민



신임 서리 집사



재임 안수집사



부활주일 2021년 4월 4일



매사추세츠교회협위의

Covid-19 팬데믹 1주기: 성금요일 예배와 부활주일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4-16-2021 As pandemic fears subside, congregations celebrating Passover and Easter reflect on hope - The Boston Globe

The Boston Globe

As pandemic fears subside, congregations celebrating Passover and Easter reflect on hope

By Dana Moore Globe Staff, Updated April 3, 2021, 4:00 p.m.

Like Lee, Young saw the country's experience of the pandemic and the arrival of vaccines as reminiscent of the Easter story of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What happens on the cross is as if God presses the reset button to allow his son to reset our condition and our relationship with Jesus," Young said. "So we're definitely talking about the pandemic and the way the nation is going through a reset — how we are actually going through a reset individually because of everything that's happening."

Religious leaders drew connections between the pandemic and Passover lessons, as well.

The Rev. Young Ghil Lee of the Korean Church of Boston has dubbed COVID-19 shots the "resurrection vaccine" — a chance at new life that he expects to promote in his Sunday sermon.

Glimpses of that new life have already appeared, he said, with state guidelines on in-person worship increasing just in time for a handful of members to celebrate Easter in the sanctuary.

"Being strong and trying to be fruitful for the whole world — that is the main theme of [the] message that I'm going to share with our congregation," Lee said.

In his predominantly Black congregation in Haverhill, pastor Kenneth Young of the 150-year-old Calvary Baptist Church said some people have faced difficulty accessing vaccines. In response, the church set up a text messaging service to help members find appointments.

There is a balm:

A SERVICE TO MARK
1 YEAR OF MINISTRY
IN COVID

Friday March 19, 2021
12pm

Rev. Laura Everett
Massachusetts Council of Churches

Rev. Kyungyoon Moon
Massachusetts Council of Churches Board Member
Korean Church of Boston, Brookline, MA

정평환 위원회는 교육 2부 위원회와 협력하여, 최근 일어나고 있는 아시안 인종 차별 문제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우리 안에 정의와 사랑을 호소하는 취지의 음악회로 엮니다.

Concert for Peace & Love(평화와 사랑의 콘서트) :
“의와 화평이 입 맞출 때(Righteousness and Peace Kiss Each Other-시편 85:10)”

음악회는 정평환, 청년1,2부, 찬양대 등의 지원으로 준비되며, Donation은 받지 않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종 차별 문제에 관한 awareness를 한인 및 지역사회에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음악회는 4월30일(금요일) 저녁 7시에 교회 본당에서 연주회를 하고(25명 내외의 제한 관중은 당일 참석 가능), 이를 녹화하여, 5월15일(토요일) 오후 7시에 교회 Youtube online 을 통해 Virtual Concert로 내보내는 행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반 아시안 증오 범죄 (ASIAN HATE CRIME)에 대한 성명서: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우리 속에서 당신을 봅니다”

총회 정서기가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아시아계 형제자매에게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총회 사무국 - March 25, 2021

LOUISVILLE

주님 안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며, 특히 아시아인이나 아시아계 모든 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미국장로교는 우리의 아시아계 형제자매와 함께하며, 아시아계 혐오에 반대합니다. 증오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애틀랜타에서 8명이 총기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 여섯 명이 아시아계 여성입니다. 여러 아시아계 공동체가 느끼고 있을 고통, 슬픔, 두려움 등의 감정은 실로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폭력으로 인해 여덟 명의 생명을 잃은 것을 같이 슬퍼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이를 잃은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분열과 증오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분열과 증오 때문에 아시아계 형제 자매들이 희생되며, 그들을 향한 폭력적인 말과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온전히 대하지 못해, 사회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피해를 우리는 또한 탄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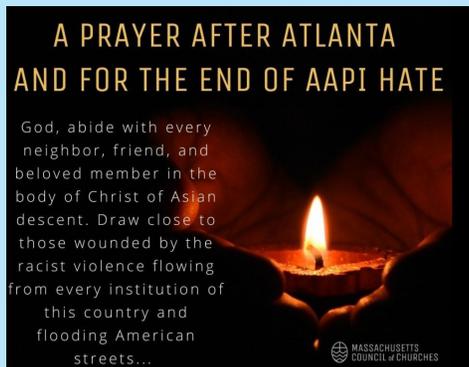
아시아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이라는 우리의 표현은 여러분이 함께함으로써 더욱 풍성해집니다.

미국장로교가 어떤 형태의 증오에 대해서도 항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위해 나서는 것처럼, 우리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에 대해서도 항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에 대한 비전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장로교 다양성과 포용성의 기초에도 반합니다. 이 다양성과 포용성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사랑받고 환영받아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 됩니다.

지난해에 증가하긴 했지만, 이 반아시아 정서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1] 그러므로 모든 장로교인들이 지치지 말고 증오와 폭력에 맞서 싸우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위해 나서도록 촉구합니다.

기도: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가운데 있는 아시아계 형제자매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소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소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소서. 억눌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당신의 지난 날에 우리의 희망이셨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사,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통치의 비전을 위해 계속 일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비영리 기관인 Stop AAPI Hate에 따르면, 2019년도와 2020년 사이에 아시아인,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 섬 원주민에 대한 증오 범죄가 150% 증가했다고 합니다.





NCKPC 총회장 성명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12:17,21)

NCKPC를 대신하여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범죄에 대해 총회장 긴급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아틀란타에서 지난 16일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백인 청년 로버트 에런 룡은 총격을 가해 8명을 살해했습니다. 6명은 아시아인이고 그중 4명은 한인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범죄자 로버트 룡은 침례교 목사의 아들입니다.

지난 1년간 미국에서 3천292건의 아시아계 혐오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11건의 아시아계 혐오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욕설과 언어희롱, 짐을 뺏는 행위, 폭행,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아시아계 혐오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순절에 회원교회는 아래와 같은 신앙운동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 교회가 로버트 룡과 같은 사람을 만든 것을 회개합니다.
- 2)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심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되도록 기도합니다.
- 3) 미국의 가정, 교회, 사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 4) 미국과 온 세상에 분열, 인종차별, 폭력, 살인이 사라지도록 기도합니다.
- 5) 아틀란타를 비롯한 전국의 혐오범죄 피해자들과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돕습니다.

살림

총회장 최병호 목사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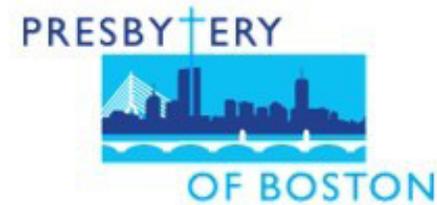


Rev. Lee,
 Thank you for coming onto the show! I assure you, your performance was better than you imagine. This program will air this Sunday evening, from 6-7 p.m.
 Thank you again for coming onto GBH. Our episode was just published <https://www.wgbh.org/news/local-news/2021/04/09/after-atlanta-attacks-how-do-we-move-forward>.
 Happy Easter, and thank you for coming on Under the Radar!
 Wesley Martin
 He/Him
 Associate Producer, [Under the Radar](#)

April 9, 2021 [Under the Radar](#)
 LISTEN 34:36
[Under The Radar | Atlanta Attacks](#)

The advocacy group [Stop AAPI Hate](#) had already documented more than 3,000 anti-Asian incidents of racism before the Atlanta murders. Worse, the March 16 murders of eight spa workers — six of them Asian women — did not stem the tide of anti-Asian racist animus. Instead, the reported episodes of physical and verbal assaults spiked. Now, Asian Americans and allies are pushing for increased awareness and demanding legal protections.
 Is this recent spate of racist attacks against Asians history repeating itself? And after years of xenophobia amplified by COVID 19, what is the way forward?

Guests:
[Cecilia Lei](#) - associate producer for Vox's "Today, Explained," and board president of the Asian American Journalists Association's San Francisco chapter.
[Janelle Wong](#) - professor of American Studies and core faculty member in the Asian American Studies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Rev. Young Ghil Lee](#) - senior pastor at [The Korean Church of Boston](#).



March 19, 2021

Dear Friends in the Presbytery of Boston,

We would like to thank all of you for the rich conversation during the Presbytery meeting about violence and hate crimes that Asian-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have experienced for many years. We all join together in grief over past crimes and the most recent shooting in Georgia. We acknowledge that the shootings in Georgia are an expression of the ongoing problems of xenophobia and white supremacy in the U.S. In addition to being a hate crime against Asian-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this was also a gender-based crime. We believe that Christians must join together in acknowledging our country's heritage of racism, sexism, discrimination, and countless racist policies.

We are thankful for the thoughtful words of the Rev. Young Ghil Lee during the Presbytery meeting. He pointed out that Asian-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have long been aware of white supremacy and the dangers it poses to all people of color. We should heed his advice to we move forward in a way that avoids more harm. He concluded his thoughtful remarks by stating, "The best thing we can do is share love and peace."

In times like this, we must remember the words of the Confession of 1967, "God has created the peoples of the earth to be one universal family. In his reconciling love, he overcomes the barriers between brothers and breaks down every form of discrimination based on racial or ethnic difference, real or imaginary . . . Congregations, individuals, or groups of Christians who exclude, dominate, or patronize their fellowmen, however subtly, resist the Spirit of God and bring contempt on the faith which we profess." Let us, as a Presbytery, join together in resisting and ending white supremacy, racism, and sexism. Let us join together in ending the racist policies in our country. And let us join together in sharing love and peace with the world.

In Christ,

Rev. Dr. Jane Wilson, Presbytery Moderator
 Rev. T. J. DeMarco, Presbytery Stated Clerk

부활절 봄 소풍 이야기

몇 년간 2살 토들러반을 섬기다 재작년부터 1학년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귀여움 뚝뚝 떨어지던 첫 제자들이 의젓한 1학년이 되어 다시 만나니 뿌듯하고 반가웠지요. 그때는 말을 잘 못해서 눈만 또롱또롱 굴리고 엄마가 대신 말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각자 하고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거의 매 주일마다 선생님이 귀도 목도 아프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분반공부를 잘 하면 병에 pom-pom을 모아서 한 통을 다 채우는 날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작년 초 한국에 잠깐 다녀온 뒤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코비드 19이 확산되어 교회 모임이 리모트로 전환되고 혼란 속에서 화면으로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허공에 대고 말하기 어색한데 아이들도 뭘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화면으로 얼굴 보이기 부끄러워 숨는 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아이, 모임 내내 저에게 채팅을 보내는 아이... 같은 시간 줌팅을 하는 제 아이들이 도와달라고 엄마를 부르기까지하면 등에 땀이 흐르고 모임을 마치면 좀 잘 할 수 없었을까 반성하며 자괴감이 들곤 했지요.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배워 시행착오를 줄여가며 아이들과 조금씩 적응하며 학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전 몇 달간 눈도 맞추고 부대끼 사이라 가상공간에서의 만남이 그리 어색하지 않았던 작년 친구들과과는 달리, 처음부터 리모트로 시작한 올해 아이들은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초등부로 올라오는 환영도 많이 해주고 성경책 찾는 법부터 하나하나 배워야 하는데...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화면속의 만남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지요. 지난 가을, 입학 선물로 성경책 받으러 집에 들른 아이와 부모님들의 만남은 그래서 더욱 귀했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이 반가워 한 시간 넘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둘러서서 이야기 나누던 부모님들과 야드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나했던 아이들... 1학년이 된 기념 사진을 찍으며 마스크 속으로 웃고 있을 아이들 미소를 마음에 담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날 따뜻해지면 만나자는 약속을 했지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우리는 그 동안 성경책 찾는 연습도 하고 경찰관 아저씨들에게 감사카드도 쓰고 설날 화면으로나마 교회 어르신들께 세배도 하면서 차곡차곡 시간을 쌓아갔습니다. 뭔가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모임마다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아이들 이야기를 하나라도 더 듣고, 좋아하는 게임을 함께 했지요. 점점 아이들 표정이 살아나고 마음이 열리는것을 느꼈고 저도 반 모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절이 가까워지니 구디백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부모님들께 공원에서 잠깐 만나자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 학부모님께서 널찍한 백야드를 열어주셔서 부활절 주일 오후에 다섯 가정이 여유롭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지요. 그저 만나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았는데 장소가 허락이 되어 에그 헌팅과 보물찾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바람이 매서운 초봄의 날씨였지만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무지개색 쪽지를 찾아서 서로 없는 색깔을 채워주고, 작은 선물을 받으며 신나하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도 함께 행복감을 느꼈지요. 생각지도 않게 부모님들이 서로서로 아이들 나눠줄 구디백과 간식들을 준비해주셔서 그 어느때보다 풍성하고 특별한 부활절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이 시기를 겪으며 우리는 한 공간에서 모이고 삶을 나누고 서로 안아주던,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선명해지면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 더욱 분명해지겠지요. 귀가 아플 정도로 재잘대는 아이들을 다시 만나 머리 쓰다듬어주고 스스럼없이 안아주며 마음껏 사랑해 줄 날을 기대합니다.



보고: 안수민 교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스톤한인교회, 사랑스러운 중고등부입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졸업식과 여름방학이 가까워지면서 저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 아침, 대예배 이후 11시에도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더해 “Committee”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에 모이는 RYG Environmental Justice Committee로 시작했습니다. 장명현 학생과 장리나 학생이 도맡아서 꾸려가는 Environmental Justice Committee는 여러 학생들과 교사들, 전도사님까지 모여서 환경보호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어떻게 대하고 가꿔야하는지 생각해보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온 중고등부에게 일주일씩 환경 관련 도전과제를 주었습니다.

2주에 한번, 일요일 예배 직후 만나는 Stress-Relief Committee도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게임과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이예은 교사와 최재윤 학생이 꾸리는 Stress-Relief Committee는 항상 밝고 재미진 공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갖기 힘들어진 친교시간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질 Committee 활동--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4월 봄방학을 맞이해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4월 18일 일요일, 4시부터 밤까지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비대면으로 참가한 학생들도 있었고, 대면으로, 코로나 예방 수칙을 따르며 참가한 학생들도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였습니다. 계획하고 도와주신 전도사님, 교사들, 그리고 특히 학생들에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소중한 12학년 학생들이 심 전도사님의 견신수업을 받으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무사히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저희의 성장과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윤경문 목사, 김수영 목사

“방구석 수련회 (One-Day House Retreat)”- 4월 10일(토)



청년 2부에서는 매년 봄에 가지는 수련회를 팬데믹으로 인해 모일 수 없어서, 줌을 통해 갖기로 하고, 4월 10일(토)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의미있고, 즐거운 수련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청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 이 수련회는 재밌있는 이벤트와 유익한 메시지, 그리고 진솔한 대화의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전에는 Ice Breaking시간(인도: 임주광 형제)으로 단어 이야기를 통해 현재 자신들의 모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Small Group Talk 시간에는 주제와 관련하여 “이 급변하는 시대에 받고 있는 도전들’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한 끼의 행복: 당신의 comfort food를 함께 공유해봐요”란

순서(인도: 문주형, 김인영 자매)를 가지며, 함께 모여 식사를 할 수는 없지만, 각자가 만든 음식을 선보이며 점심을 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서로를 더 알아가기 위한 “Who Am I?” 코너(인도: 최효영 자매)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Creative한 방식으로 보여주며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는 청년부 선배이신 손영권 집사님을 모시고 청년들의 고민을 선배님과 나누며 조언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당집사님이신 구용한 집사님께서도 함께 해주셨는데, 청년들과 함께 해주셨던 두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말씀 메시지는 윤경문 목사님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크리스찬 청년들”(로마서 12:1-13), 김수영 목사님이 “새 사람, 새 교회”(에베소서 4:17-24)를 수련회 주제와 연결하여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Tea Time for Our Soul”시간(인도: 김현모 형제)에는 수련회 전에 미리 전달/픽업한 김현모 형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Package(Tea/Candy/Jam, card etc.)를 풀어서 함께 Tea를 마시며,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청년들 서로간의 더 깊은 교제를 시간을 갖고, 은혜롭게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포스터도 직접 만든 회장 정윤원 형제와 정성껏 각 순서를 준비해준 회장단/임원진들의 수고로 모두가 하나되어 기쁨을 누리는 수련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청년 2부 교우 동정:** 5월 & 6월에 청년부원의 결혼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5월달에는 양원제 형제 /최효영 자매의 결혼식이, 6월에는 김효인 자매/Justin Han의 결혼이 있겠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KCB YOUNG ADULTS 2 PRESENTS



ONE-DAY HOUSE RETREAT

“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청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까?”
“How should we live as young adult Christians in a rapidly changing world?”

2021년 4월 10일 (토) 오전 11시, 줌 모임
April 10th, 2021 (Sat), 11:00 AM via Zoom
(Zoom 초대장은 카톡과 4월 8일 공지메일 참조)

각종 이벤트, 유익한 메시지, 진솔한 대화, 무궁한 상종까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1년 저희 부부청년부(이하 부청)의 표어는 “이 모든 것을 보라: 동행, 회복, 새 일”입니다. 저희 교회 올해의 표어이기도 한 “이 모든 것을 보라”와 김수영 목사님께서 더하여 주신 “동행, 회복, 새 일”을 합쳐,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이 세워졌습니다.

1월부터 한 달에 두 번, 격주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는 김수영 목사님께서 나눠주시는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왕중왕 앞에서 술 담당 관리로 있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달려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면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희 부청이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떤 새 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동안 저희 부청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김수영 목사님께서 원래 부청이 모임하던 방에 직접 가서, 그 방을 배경삼아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주는 아이들을 위한 ZOOM방을 따로 만들어 박재미 자매님께서 진행하는 놀이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청 특성상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많으니, 부청 모임에 집중하기가 쉽지않을 때가 있습니다. 박재미 자매님께서 수고해주셔서, 모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주는 “마음 同行 프로젝트”라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부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저희의 마음만은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한 조씩 각 가정들의 의미있는 사진들을 공유하며, 서로를 더 알아가고,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원단들, 그리고 두 조가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청에는 다섯 조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조장님들께서 김수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조원들과 함께 성경공부 시간을 ZOOM으로 갖고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이라 더욱 깊은 나눔과 교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소그룹 모임으로는 형제/자매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올해 형제모임은 “책 읽는 남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윤병준 형제님께서 정해주신 Michael Horton의 “Putting Amazing back into Grace”라는 책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매모임은 “찬양기도회”로 찬양과 기도로 채워진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청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매년 6월마다 뉴햄프셔에 있는 Pilgrim Pines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갔었지만, 팬데믹 이후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청 가정들이 원하고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지금 투표를 통해 수련회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이라 참으로 한계가 많지만,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회의하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대면모임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임산부를 고려하여, 당분간은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하지만 곧 다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직접 만나 얼굴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보다 더욱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 날까지 저희 부부청년부는 더욱 마음을 모아 동행하고, 회복하며, 새 일을 이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

코로나로 1년 넘게 교회도 못가고 집에만 있다보니 우리 상록회는 활동이 거의 중단 되었습니다. 상록회 단.독.으로 간간이 연락하며 서로 기도 하며 연락하며 지냅니다.

그간 엄인숙 집사님이 편찮으셔서 모두 기도하며 지금은 쾌차 하시어 회복중에 계십니다. 박기춘 권사님께서도 여러가지 수술과 시술로 힘드셨지만 회복 중에 계시고, 공경희 권사님도 몸이 안좋으셔서 입원과 검사하셨으나 지금은 집에서 잘 관리하시고 계신답니다.

이숙재 권사님 하늘나라 가신지 1년이 되어 4월 11일에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50여명이 참석하시어 추도예배를 드렸습니다. 상록회에서는 묘지에 큰화분에 예쁜 나무와 꽃 심은 화분을 만들어 묘지에 놓아드렸습니다.

간간이 만든 마스크를 추도예배에 오신 분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나이드신 상록기도회는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 관계로 생일 카드도 못보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직 상록회원 모두 하나님 은혜로 탈없이 잘 지내고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고 이숙재 권사
1주기 추도예배
2021. 4. 11.



팬데믹 속에서 2021년을 시작하며 2월 26일 줌으로 임시총회를 가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참 감사했습니다.

2021년 권사회를 섬기실 새 임원단이 인준 되었습니다.

회장: 이경자 권사, 부회장: 김정림 권사, 회계: 신미송 권사, 서기: 김용희 권사

고문: 이성혜 사모님 & 김영미 권사

지난 2월 7일에는 타교회에서 섬기시던 3분의 권사님들- 윤영자 권사님, 김경희 권사님, 김혜숙 권사님-의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월 5일에는 바누아트 여성을 위한 세계기도일 예배가 유튜브로 진행되었는데 참여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바누아트 여성들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월 11일 주일 오후에는 고 이숙재 권사님의 1주기 추모예배를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살아 생전 남기고 가신 권사님의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을 다시 느끼며 기억할 수 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추모 예배 참석자들을 위해 가족들이 접대하는 도시락을 몇분 권사님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셔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부활절에는 성찬 준비에 참여하였고, 상록기도회 어르신분들께 생신 카드와 돌봄(care) 카드를 보내드리며, 아울러 중보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권사회 임원회는 매달 만나서 안부도 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토론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따뜻한 섬김의 아름다움이 넘치는 권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드리며, 주 안에서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찬 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4월23일 오후부터 24일 오후까지 동북대회 여선교회 주최하는 연합 수련회에 zoom으로 있었습니다. 매해 가지는 행사로 보스톤에서 뉴저지, 뉴욕 주 등 장거리 운전으로 참석하였으나 감사하게도 올해는 팬데믹이 주는 이익을 저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도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희 교회 여선교회에서는 이성혜 사모님, 이경자, 김정림, 진정원, 김한나 등 5명이 참석하여 먼 곳의 여선교회원을 만나며 주제 강의,workshop을 통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30 회 동북대회/동부한미노회 여성연합회 연합수련회

Calling and living your Discipleship

Session 1: 하나님의 부르심
 Session 2: 제자의 삶
 Session 3: 소명의 공동체

4.23 (금) 6:30-8:45pm / 4.24 (토) 10am - 2:30pm

Zoom Meeting ID: 764 831 9726 / Passcode: Together

주제 강의의 강사: 장성의 교수 (Sung Hee Chang, Ph.D)
 Prof. at Union Presbyterian Seminary

Worship/Workshop: 이정원 목사
 National PW Moderator
 Women Together Director

미국장로교 동북대회/동부한미노회 여성연합회 (KPW/EKPW)
 연락처: 김용영 회장 dongyhm125@gmail.com / 이적숙 회장 love219@gmail.com

Calling and Living Your Discipleship
 부르심과 제자의 삶

To Be Continued...

Trails

WHERE IS MY PATH LEADING?
 WHO AM I CALLED TO BE?

Session 1
 Calling throughout Life's Seasons
 하나님의 부르심

안녕하세요.
 보스톤한인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드립니다.
 아직은Covid-19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 시간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리아 여 선교회는 현재 예년과 같이 모든 교회 행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나아가는 모든 행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감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아 상반기 활동을 소개합니다.

마리아 여성 중보 기도모임을 격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내 이웃, 교회와 사회,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 하는 모임입니다. 저희의 지속적인 기도가 이 세상의 작은 빛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 모임은 zoom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저희 교회의 모든 여성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 1월 24일 **마리아 여선교회 신년 총회**가 있었습니다.
- 3월 5일 **세계 여성 기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올 해에는 바누아투의 여성들 을위한 예배로 드렸으며, Zoom으로 미주 전 지역 한인 여성이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주셨으며, 모아진 헌금은 (\$1450) 예배 주최측인 '미주 한인교회 여성 연합회' 에 보내드렸습니다.

- 이 헌금은 바누아투 여성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 3월7일 이영길 담임 목사님 생신을 맞이하여 화분과 작은선물을 드렸습니다.
- 3월 21일 에스더 여 선교회와 같이 **여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으며, 같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4월 24일 **상반기 쉼터 음식 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는 활동이 되기를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나누어 준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올 해부터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여러 사모님 생신에 작은 선물과 카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하여 사모님 생신 당일에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 절기를 알리고, 함께 나누고자 교회 절기마다 교회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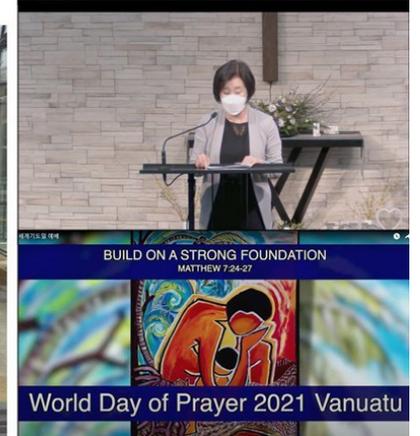
마리아 여 선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총회 와 여선교회 헌신예배



교회 현관
 앞과
 Community
 Hall
 창문 장식





〈에스더 첫 줌미팅 모습〉

봄, 봄, 봄이 왔어요!. 봄 바람 휘날리며 훗날리던 벚꽃 잎이 울려퍼진 거리를 걸어보셨나요?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듯 팬데믹으로 잃어 버린 일상이 봄 바람 타고 다시 돌아오길 기대해 보는 2021년입니다.

2021년 에스더 여선교회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활동이 멈춰있던 상태였지만 2월 14일 총회를 시작으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첫번째 모임을 통하여 에스더 임원진들이 각 부서별 한해 계획을 세우고, 새로 들어온 회원님들을 위한 에스더 활동 소개 및 친분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스더의 첫 공식 행사로 3월 21일 마리아/에스더 연합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에스더, 마리아, 그리고 부부청년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특송을 준비하는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자리였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녹음된 영상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성령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38명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노래하고, 마음에 드는 영상이 나올 때까지 연습하여 만들어진 각 사람의 찬양은 여성 회원님들의 얼굴만큼이나 예쁘고 따뜻한 함이 느껴지는 찬양이었던것 같습니다.

〈마리아/에스더/부부청년부 헌금특송 영상〉

3월엔 특별히 이영길 목사님 생신을 축하해 드리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36명의 에스더와 부부청년 여성회원님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목사님을 모시고 생신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고 케이크에 초를 꽂아 드리지는 못 하였지만, 목사님을 향한 회원들의 재치있고 진심담은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

님을 생각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담은 특별한 선물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메시지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앞에 두고 생일 축하 메시지와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기회였습니다. 36명의 축하 메시지를 짧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빠 같이 따뜻하시며, 정겹고, 인자하시고, 행뻘하시고, 소지섭처럼 어여쁘시며, 예술적으로 영혼의 아픔을 포근하게 돌보시며, 정겹게 성도들을 지키시고, 미소가 천사같이시고, 총명하시며, 한결같으시고, 빛이나시며, 목소리가 멋지시며, 센스있으시고, 세심하게 옷 잘입으시는 패셔니스타라서 미녀 사모님을 두신 가족같은 이영길 목사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에스더에서는 그 외에도 임직식 (2월 7일) 그리고 부활절 (4월 4일) 헌화 준비를하여 예배실을 환하게 장식하는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임직식 코사지와 부활절 헌화〉

2021년 에스더 임원진들은 이 모임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함께 기쁨으로 부담없이 섬길 수 있는 에스더’로 정하고 모임에 한번도 안나오셨더라도, 교회에 처음 나오셨더라도 나이와 성별, 자격만 갖추신다면 모두 에스더로 하나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직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언제나 환영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과 들뜬에 피어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다는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하루인지요.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곧 뵈실길 기도합니다.

집사회

회장 채진병 집사

신임서리집사 교육 참가 & 집사회 소개 -1/31
 신임안수집사 교육 참가 & 집사회 소개 -2/13
 경조부 화환 - 2/23 (김수영 목사님 외조모상)
 봄 대청소 : 5 월 15 일(토) 오후1 시 예정입니다.

지난 3월 20일에 있었던 집사회 임시총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개 위원회와 집사회 소개를 통해 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집사들과 위원회를 연결해줌으로써 이후에 있을 제직회 준비를 하는 동시에 더 많은 집사들이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참석인원은 presenter를 포함해서 45명이었고요 부부로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총 50명이 참석 하였고, 저녁 7시 10분에 시작해서 8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찬양(최현구집사님 인도), 개회기도(이정민 장로님), 각 위원회소개에 앞서 Introduction(박신영 장로님), 14개 위원회+집사회 소개, Q&A, 설문조사 그리고 마침기도(채진병 집사)의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문조사는 “오늘 각 위원회 소개를 듣고 14개의 위원회 중 더 알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위원회를 multiple choice로 선택해주세요.”라는 질문의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설문조사에 성심껏 응해주셨습니다.

KCB 나누고 싶은 모습들



KCB YOUNG CHRISTIAN LEADERSHIP AWARD

- 보스톤 한인교회 남선교회는 2009년 11월 27일 창립 중회를 갖고 이월달 집사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
- 그리스도의 돌핀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신앙성숙과 회원상호간의 친교와 협조를 도모하며, 기도, 선교, 교육, 구제 및 봉사등 그 목적으로 한다.
- 해마다 장학 기금 모금을 통해 장학금을 수여.
- 2020년 현 회장에 이정규 장로.



PRESBYTERY OF BOSTON

New England GLOW

New England Glow This Week

Friday, January 8, we will be having our first Youth Praise Night at 7 PM, hosted by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raise team! There will be music, scripture, reflection and a time for fellowship. I hope you can join us! [Click 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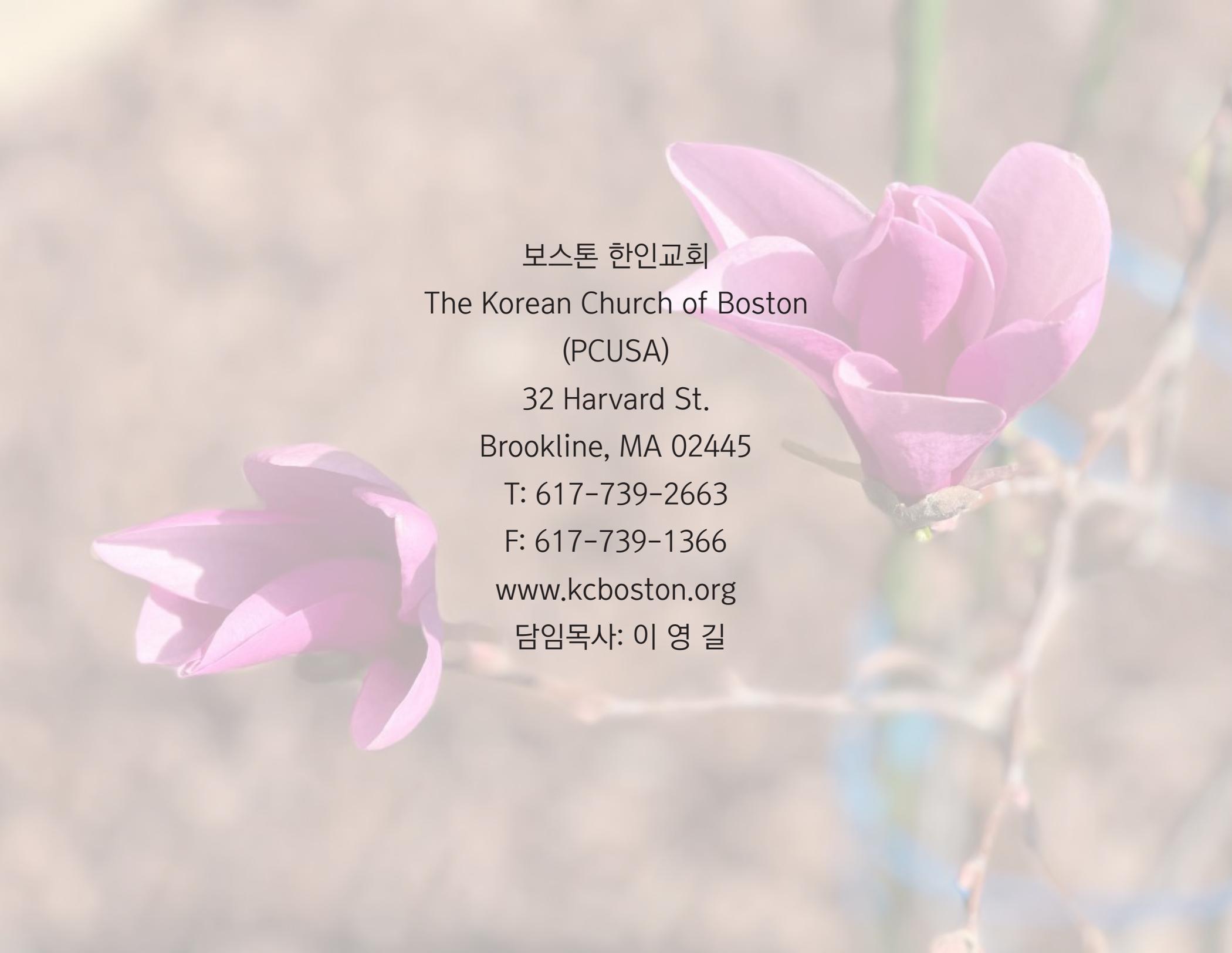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사셨느니라, 로마서 4:25

사순절 묵상집 2021

보스톤 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817.738.2828 / www.kcboston.org

홍보출판위원 : 김원희, 김하나, 서재영, 이재학, 이자나, 정유미, 윤경문 목사
 표지 디자인 : 배광현

A close-up photograph of two pink magnolia flowers on a branch. The flowers are in various stages of bloom, with some petals fully open and others still partially closed. The background is a soft, out-of-focus light brown and beige, suggesting a natural outdoor setting. The lighting is bright and even, highlighting the delicate texture of the petals.

보스톤 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